



군산시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입)가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각종 재난·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 대상 의료비 생계비, 주거환경개선 등의 긴급 지원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보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입 의장은 "행정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서 사람과 봉사를 실천하며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봉사원들께서 인도주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한방진료지원사업 추진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희중)은 고령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한방진료지원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

한방진료지원사업은 신태인농협 만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의 한방진료를 연간 10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태인 관내 동안한의원, 명한의원, 수한의원, 원광한여한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되었다.

이번 사업은 황희중 조합장의 공약사항으로,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3년간 연봉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조합원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헌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황희중 조합장은 "한방진료지원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신태인농협이 되겠다"며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시는 관내 참여 한의원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19일부터 29일까지 화재 진압대원과 구조·구급대원 등 188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기술능력 향상과 팀 단위 소방전술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화재진압(4인 화재진압 전술) △구급수직 인명 구조 △응급처치(현장 외상환자 소생술) △공공재난안전통신망 무선 활용 도상형 화재대응전술 등의 분야로 진행된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덕진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방화문)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방화문) 일제단속은 지난 12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사망2명, 부상30명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으며 화재발생 세대 환관문 또는 방화문 개방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 한다.

또한 범정부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바로세우기 캠페인" 일환으로 실시 하며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화재 안전관선 필요를 위해서 추진 한다.

조사 대상은 전주덕진소방서 관내 계단실형 아파트 180개소이며 중점 추진 사항은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적정성 △방화문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바로세우기 캠페인 컨설팅 팀 현장 방문교육 병행 추진 등이다.

16일 오후 소방본부 주관 영성회에 참석한 덕진소방서 대응예방과는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확인·점검 하고 일제단속 준비를 마쳤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평상시 잘 유지·관리된 피난·방화시설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난치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개발 나서

전북대 이용철 석좌교수팀, 허버드의대 등 우수 연구진 참여 호흡기질환 정복 목표

전북대학교 이용철 석좌교수는 최근 전북대병원과 약학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허버드의대 등 국내외 우수 연구진이 참여하는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소를 설립, 중증 난치성 호흡기 질환 정복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기도를 표적해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이용철 석좌교수와 전북대병원 진공용·정명자·김종승 교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정재석 교수 약학대학 채한정·민경현·강지현 교수, 그리고 허버드의대 박진아 교수 등이 함께 한다.

이 교수는 "중증 난치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고통을 목도하면서 임상으로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반드시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치료제와 치료방법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해왔다"고 이 연구소 설립의 주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흡입성 난치성 전식 치료제 개발 성공과 2016년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의료 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중 유일하게 호흡기질환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 지정 호흡기질환 제품 유효성평가 연구단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외 제약사의 전문적인 호흡기질환 제품에 대한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폐질환 의료 기술상용화지원센터에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증 전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 및 기타 중증 호흡기질환의 치료제와 신약 후보물질 효능 평가 등의 중책을 맡기도 했다.

또한 만성호흡기질환 환자 맞춤형 최적의 기도 표적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구축에 성공, 이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미래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용철 석좌교수는 "현재 중증 전식을 포함한 많은 난치성 폐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어서 우리 연구팀이 그간 이뤄 온 획기적인 접근들이 향후 임상의학 분야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중증 난치성 호흡기 질환 환자 맞춤형 최적의 기도 표적 치료제 개발에 반드시 성공해 많은 만성 난치성 환자 및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전북의대 최초로 올 2월 1일자로 석좌교수에 임명됐다. 현재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정회원으로 대한 전식 및 알레르기 학회장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석좌교수는 화이자 의학상수상자로 호흡기알레르기 분야에서 월등한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국가 지정 연구실 사업,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국내 최초의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및 호흡기 질환 유효성 센터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장은성 기자



권남주 신임 장수신협 이사장 취임식 열려

장수신협 제16대 이사장 취임 및 임원 아취임식이 지난 15일 장수군 한누리집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제45차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장수신협을 이끌어 나가게 된 권남주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수신협에서 25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뿌리 깊은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맡든 바 역할을 다하고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바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고 했다.

이날 장수신협 임원으로 이기인 부이사장, 하길수 이사, 지봉규 이사, 유효윤 이사, 이종수 감사, 조장현 감사가 취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백산한우영농조합, 김제사랑 장학금 200만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백산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고상영)이 지난 16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산한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 2013년에 이어 3번째로 김제사랑장학금을 기탁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으며 백산편을 중심으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지역 축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특히 고상영 대표는 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수석부회장, 백산편 농촌지도자회장, 백산편 농업경영인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농촌 발전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고 대표는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김제시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장학금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지원학생당 및 지원장학생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부안군, 2024년 산림분야 종사자 발대식 개최

부안군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읍·면과의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해 산불취약지역 순찰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림인접지 농림잔재물 파쇄 지원 등 산불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산불 발생시 즉시 투입에 초동 진화하는 등 산불 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16일 군청 대강당에서 산림분야 종사자 10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종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예방 다짐을 위한 결의문 낭독,



산불감시 주요 임무와 근무수칙 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직무·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 100명 목소리 경청... 시정 현안 토론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이갑삼)는 지난 15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시민토론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고경윤 시의회의장,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이도형·고성환·서항영·송기순 시의원,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부족, 축산·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교육·의료시설 부족,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을 환경·경제·평등 그룹으로 나눠 토론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정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의제를 정리하고,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학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행정에서는 시민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촌회, 남원시 우수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남원시 기관장 모임인 남촌회(회장 최경식 남원시장)는 지난 15일, 이양의 한글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신병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남원시장실에서 관내 중학생 2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촌회는 매년 남원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경식 남촌회 회장은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며, 미래 남원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주는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남촌회는 관내 25개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ESG경영 실천 등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진안 백운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현장 교육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지난 15일 청정 환경을 지키고 쓰레기 3NO 운동(안태우기, 안버리기, 안묻기) 정착을 위해 클린 하우스 청결지킴이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위촉식은 35개 마을 클린하우스의 청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킴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쓰레기 3NO운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영상 시청 관련 직무 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을 클린하우스에서 실시한 현장 직무교육에는 재활용품 배출 요령 및 분리수거 등 클린하우스 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시설물 관리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보순 면장은 "항상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깨끗한 백운 만들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청결지킴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지킴이 분들이 앞장서서 머물고 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실버 우드힐링 체험 신청접수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이 노인들에 대한 치매 예방을 위한 목공 활동으로 경로당 주변에 평상 및 데크를 설치하는 '실버 우드힐링(Silver Wood Healing) 체험'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가치 실현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보훈·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숲체험 및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농산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우드힐링 체험'은 10월까지 진행하며,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 신청받는다.

목공 활동으로 노인들에 대한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 및 기억력을 향상하고, 경로당 주변에 평상 및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컴퓨터를 소유하게 됨에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을 얻고, 노인들이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 관계자는 "실버 우드힐링 체험을 통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목재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저장량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